

박근혜 정부 장·차관-청와대 인사, MB정부 출범때와 비교해보니

장관 2→2명 차관 8→3명 '호남의 눈물' 언제까지...

靑수석급 0→3명 비서관은 6→5명 권력기관장·외청장 인사 중용 기대

지난 5년간 인사 소외로 피눈물을 흘렸던 호남인들이 또다시 5년을 한숨 속에 보내야 한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국민대통합을 위한 인사대통령을 의뢰한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까지 발표한 정부와 청와대 인사 내용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출범때에 비해 그다지 나아진 게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청와대 비서관에는 이정현 정무수석을 비롯해 호남인사들이 다수 포진,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13일 발표된 차관 인사는 5년 전과 비해 호남 출세가 더욱 심화됐다는 평가다. 20명의 차관 중 호남 출신은 고작 3명(15%)에 불과했다. 반면 영남과 서울·경기 출신은 각각 6명(30%)나 됐다. 5년 전 이명박 정부 초반 차관인사 때는 25명의 차관 중 호남 출신은 8명(32%)으로 가장 많았다. 장관 인사 때 호남 소외가 심각했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로 평가됐다. 이어 영남 출신이 7명(28%), 충청 6

명(24%), 서울·경기 4명(16%)이었다.

내각의 장관은 이명박 정부 때와 비슷한 상황이다. 5년 전에는 15명의 장관 중 영남 4명, 서울·경기 4명, 호남 2명 등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17명의 장관 중 서울 7명, 영남 5명인 반면 호남 출신은 2명에 불과하다.

청와대 비서관 구성은 5년 전에 비해 호전됐다는 평가다. 우선 이명박 정부 때는 '1실장 7수석 1대변인'으로 구성된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경우 영남 출신이 5명이나 된 반면 호남 출신은 단 1명도 없었다. 이에 비해 '3실장 9수석'으로 구성된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에는 호남 출신이 3명이 들어갔다. 영남 4명에 이어 많은 숫자다. 서울과 충청 출신은 2명씩이었다.

비서관은 비슷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에서는 39명의 비서관 중 서울·경기 출신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10명)과 호남(6명), 충청(5명)이 뒤를 이으면 지역균형을 어느 정도 이뤘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 40

명 중에는 서울·경기 출신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 출신도 11명으로 5년전과 같이 우대를 받았다. 호남 출신은 5명, 강원 출신은 4명이었다. 12일 청와대 발표 때 광주 출신으로 분류됐던 김형진 외교비서관은 아버지 고향이 광주이긴 하지만 광주에서 생활한 적이 없어서 스스로 '서울'을 고향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비서실장·국정원장 등 이른바 '빅3' 인사를 비교해도 '영남 우대, 호남 소외'로 표현되는 인사 기조는 그대로 재현됐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 때는 '합승수(강원) 총리, 류우익(영남) 대통령실장, 김성호(영남) 국정원장' 체제였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홍원(영남) 총리, 허태열(영남) 비서실장, 남재준(서울) 국정원장' 체제로 짜졌다.

새누리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호남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는데 현재까지 인사 내용으로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 등 권력기관장 인사와 외청, 정부기관 인사에서 호남 출신들이 중용되기를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난 12일 오후 광주 리마호텔 5층 연회장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개강식에 참석한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리더들 감성소통으로 지역에 이바지 해야”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첫 강자

박동규 서울대 명예교수 '문학으로 소통하라' 강연

“소통은 정서적 공감력이지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이다.”
지난 12일 오후 6시 상무지구 리마호텔 5층 대연장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첫 강연자로 나선 박동규 전 서울대 국문과 교수는 '리더들이여 문학으로 소통하라'는 주제 특강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관련기사 2면>
이날 박 교수는 “내가 살고 싶은 삶

에 대한 자각이 먼저 이루어지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통해 삶의 진로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소통은 이 과정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기초적인 정서”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사회 리더 여러분이 광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진지한 성찰을 하길 바란다. 컬처(culture)의 원뜻은 씨를 뿌리고 경작하는 것이다. 이번 '소통'을 주제로 한 강의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작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며 리더스 아카데미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정치·경제·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를 초빙, 강의와 토론을 통한 리더십 함양은 물론 국가와 지역사회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를 집중 연구하는 전문 프로그램이다.

아카데미 원장을 맡고 있는 김여송 광주일보 대표이사는 환영사에서 “21세기 격변하는 다원화·전문화 시대에 소통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다

국가 발전의 기본적인 요소”라며 “올해로 61주년 회갑을 맞는 광주일보는 그동안 지역 정론의 역할을 감당해왔던 토대를 바탕으로 지역 리더들이 폭넓고 격조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밑거름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강식은 환영 만찬, 명사 특강, 화원소개 등의 공식 행사에 이어 단체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2주차 특강은 19일 오후 6시 리마호텔 3층 세미나실에서 박지원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초청, ‘정치, 그리고 리더십을 생각한다’는 주제로 진행됐다. /박정현기자 skypark@kwangju.co.kr

차관 20명 인사...18명 내부 승진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13개 부처의 차관과 국무조정실 차장 2명 등 20명의 차관인사를 단행했다.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기획재정부·국방부·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의 차관은 이날 임명되지 않았다. <관련기사 3면>
20명 가운데 내수일 교육부 차관 등 2명을 제외한 18명이 내부에서 승진해 전문성과 조직 안정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출신지별로는 영남 6명, 서울 5명, 호남 3명, 충청 3명, 경기·강원·제주 각 1명 등이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10명으로 과반이었다.

호남 출신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한진현(보성), 안전행정부 2차관 이경욱(전북),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박종길(전북) 등이었다.

박 대통령은 교육부차관에 나승일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 외교부 1차관에 김규현 외교통상부 차관보, 외교부 2차관에 조태열 경기도 자문대사를 각각 임명했다.

또 통일부차관은 김남식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차관은 김학의 대검 대전고검장, 안전행정부 1차관은 각 1명 등이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10명으로 과반이었다.

관광부 2차관은 박종길 태릉선수촌장을 각각 임명했다.

농림축산부 차관은 여인홍 농림수산물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영찬 새누리당 복지위 수석전문위원, 환경부 차관은 정연만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현욱 근로복지공단 비상임이사,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국토교통부 1차관은 박기중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 2차관은 여



산업2 한진현 안전2 이경욱
영국 국토해양부 행정정책실장, 국무조정실 1차장은 홍윤식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 국무조정실 2차장은 이호영 국무총리실 국정운영2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성자동차 www.gj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2013년식 The E-Class
36개월 무이자+평생 소모품 무상서비스
062)226-0001
Mercedes-Benz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www.eodeungsancc.com

1+1=?

어등산컨트리클럽 진화의 시작!

광주컨트리클럽 준회원 혜택 파격적인 동반자 혜택

구분	개인 A	개인 B	개인 C	가족 A
입회금액	7,000	8,500	13,000	12,000
회원혜택	•정회원 1인 •지정 1인 •동반자 1인	•정회원 1인 •가족 1인 •동반자 2인	•정회원 1인 •가족 1인 (타인가능) •동반자 3인 •년3% 확정금리	•정회원 2인 •가족 1인 (타인가능) •동반자 3인

•광주은행 : 회원권 분양 대출 60% 가능
•동반자 1부 30%, 2부 25% 할인(동반자 할인의 요금 폭이 지정인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VIP, VVIP 회원권은 마감, 개인C 마감(전원납부순으로 마감)

입회문의 TEL. 062-605-3050 예약문의 TEL. 062-605-3030

어등산컨트리클럽
EodeungsanCountry Club